



위의 그림을 보면 B에서 C까지의 길이가 A에서 B까지의 길이보다 더 짧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자로 재어보면 AB보다 BC의 길이가 더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유는 A와 B사이에 4개의 막대기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상대적으로 크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내가 자만하여 노력하지 않는 한 도태되고 마는 것은 분명한 이치입니다.”

-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 126:5-6) -

* * * * *

정구단상

예수의 삶

누가 7:18-23 “요한이 그 제자중 들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앓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눅 7:19,22)

요한에게 메시아 의심이 일어날 만도 합니다. 예수는 너무나 명성이 없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본 대로 예수는 저 인생의 변두리에서 소경을 보게하고, 절름발이는 바로 겉게 하고, 나병환자는 깨끗하게 하고, 귀머거리는 듣게 하고, 죽은 사람은 살아나게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 주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이름없이 미미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때 메시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목표 생명의 예수 삶의 기쁨	'이천년 교회생활: 주일에서 매일 중심신앙'	교회생활지침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누가 10:37
제 2권 14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262-3717/021-292-1639. ☐229A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2000년 4월 2일	

복사본(대량)에 주세요

남편이나 자식과는 달리 저는 진보도 없고
우울감마저 듭니다.

Q) 50을 앞둔 주부입니다. 아이들은 커서 제손을 떠났고 남편은 사회적 지위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데 저만 퇴보하고 한 가지 제대로 한게 없어 우울증마저 듭니다. 저도 학창시절엔 참 괜찮았는데 남은 생애동안 어떻게 살아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A) ‘중년의 위기’인 둇지 신드롬’이 찾아 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둘이켜보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성장이 있으나 자신만 성장이 없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소중함과 성장을 위해 사셔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1) 내적인, 영적인 성숙을 먼저 추구해야 합니다. 50대면 이제 외모는 내리막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여물어 갈 수 있습니다.

2) 외모에도 부지런하십시오. 이는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는 표시입니다. 같은 꽃이라도 가꾸어준 꽃이 더 아름답습니다.

3) 교회의 섬김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가정을 돌보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그로 인해 자신을 소홀히 하고 좀더 넓혀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지 않으면 영원한 보람이 없습니다. 평소 이웃을 위해 심은 것이 없으니 거를 것도 없는 것입니다.

4)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비록 작을지라도 사용하며 살면 즐겁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서로 힘이 들게 됩니다. 언제나 속 사람이 넉넉해서 남을 도와주고도 남는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내와 엄마의 고마움을 모르는 가족을 위해 살다가 자괴감과 우울함 속에서 인생을 마쳐서는 안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평균수명을 살아도 20년 이상이 앞에 있습니다. 열심히 자기 은사 개발을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